

## 농민의 건강, 최선을 다해

-농협 전남도지회 공제계약자

농업협동중앙회는 '86년부터 공제 계약자에 대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간염, 자궁암 검사를 중심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온 농협은 그동안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농협전남도지회의 경우 지난해에 간염 19,488명, 자궁암 11,070명, 소변검사 30,588명을 검사해 내고, 자궁암의 경우,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건협과 함께 치료를 받을 때까지 권유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전반을 분석·검토하여 농민의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정도, 검사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등을 모색하여 농민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복지 환원사업을

### 질병으로 부터 자신을 구해준 농협에 감사

신경윤씨(46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10-3)는 평소 감기 한번 앓지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다. 그녀는 공제회에서 실시한 자궁암 검사를 받은 후 들려온 "자궁암"이라는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아무 증상도 없었으니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후에 몇몇병원을 찾아갔을 때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적도 있었구요.』

그러나, 단협조합장인 그녀의 부군은 그녀에게 정확히 재검은 받도록 권유했다. 『건협에서 재검을 받은 결과는 처음의 결과와 같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전대병원 최호선 박사님을 찾아가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자궁암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앞이 캄캄했다.

『신경윤씨의 경우는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으면 치료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뻔 했던 상태였으니까요.』 병원의 관계자와 건협의 담당 병리사 백숙희씨의 이야기다.

『제일을 계기로 저희 마을의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 지켜야 합니다.

건강 검사를 마치고 -

성실히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전남농협도지회는 李聖才도지회장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농민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그것은 이 건강검사를 받은 농민들 특히 질병을 발견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농협공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에 있었던 전남도지회 검사에서 자궁암을 발견한 17명중 몇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켜주고, 또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병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농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 더 많은 사람이 건강검사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는 신경윤씨



▶“하늘과 농협이 저를 살렸습니다.”라는 정연님께서

-왜 건강검사가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연님께서(41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황산)씨는 평소 건강하기도 했지만 자궁암검사에 대한 쑥스러움 때문에 검사받기를 꺼려해왔던 사람이다.

『농협에서 건강관리협회의 검진버스가 나와서 자궁암검사를 해준다고 했을때 처음엔 쑥스러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협공제회와 관련도 없었구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검사를 못받는 사람대신 우연히 검사를 받았읍니다.』

이렇게 우연히 그것도 친구대신 받은 검사에서 그녀는 뜻밖에도 자궁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그냥 내버려두고 생활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백숙회씨와 농협에서 여러번 전화를 하는 바람에 다시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녀는 “암”이라는 사실에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고 말한다. 전대병원 최호선박사의 치료를 받고 현재 완치된 정연님씨는, 『무료로 뭘 해준다고 하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검진버스가 동네까지 와서 건강검사를 해준다고 할때 형식적인 일이겠거니 하고 여겼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고나니 정말 농협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왜 이런 건강검사가 필요한지도 알았구요. 하느님께서 제몸도 마음도 살리시기 위해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신것 같아요.』

## — 농민 위한 건강검사는 꼭 필요 —

이순암씨 (47세\* 전남 함평군 율야면 광동리 692)는 이장을 통해 건강검사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예 무시해 버렸다고 한다.

『그냥 구경삼아 가보자는 친구의 말에 쫓아갔다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 자궁암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녀는 그때부터 전화공세를 받아야 했다. 농협과 건협이 백숙희씨가, 그녀가 재검을 받을 때까지 거의 매일 전화를 했다고 한다.

『자꾸 전화를 하니 짜증도 나고, 나중엔 죽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되는 전화 싸움(?)에 지쳐버린 그녀는 마침내 건협을 직접 찾아가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순암씨 역시 전대병원 최호선 박사의 도움으로 현재는 완치가 되었다.

『농협에서 하는 건강검사 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검사를 회피하는 입장에서 남에게 검사를 권하는 입장이



◀ 검사를 회피하던 자세에서 주위사람에게 건강검사를 권하게 되었다며 농협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순암씨

되어버렸죠.』라며 그녀는 시원스럽게 웃었다.

『검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건강검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자궁암 같이 증상없이 병이 깊어지는 병들은 특히 더 그렇죠. 이번 자궁암검사에서도 17명뿐 아니라 재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있을 사람들도 있는데, 재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빨리 인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협외 백숙희씨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고 말하는 백숙희씨



### —농협전남도지회의 적극적 행동을 배워야

이상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최호선박사님이다. 어느 환자든지 때로는 친구처럼 더러는 아버지처럼 헌신적으로 돌보아주었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그안에서 느껴진다.

둘째는 건협 전남지부의 백숙희씨다. 건협에 입사한지 11년. 그녀만큼 맡은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 없었다. 재검을 권유하느라 전화를 하면 욕을 먹기가 일쑤였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검이 필요한 한사람 한사람을 끝까지 설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역시 농민들에게 검사의 기회를 부여해준 농협 공제회의 역할이었으며, 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농협전남도지회의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 누구의 행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